어가인구·어업소득, 5년새 감소

민주 윤준병 의원, "2017년 12만명 넘었던 어가인구 지난해 기준 9만명대로 줄어 어업소득은 26.3% ↓ · 어가 부채는 51.7% ↑… 어촌 소멸 방지 종합대책 마련 절실"

2017년 12만명이 넘었던 어가인구가 지난해 9만명대로 감소하면서 10만명선이 붕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30세 미만 어가인구가 절반 수준에 가까운 41.8%가 감소했고, 어업소득은 26.3% 감소한 반면 어가부채는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어촌 빈집이 전국적으로 3만 6천동에 달하고 있어 인구 감소·빈집 증가·경제 악화 등 삼중고로 인해 브레이크 없이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와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촌 실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어가는 4만 3,327가구로 2017년(5만 2,808가구) 대비 18%가 감소했고, 어가인구 역시 지난해 9만 3,798명으로 2017년(12만 1,734명) 대비 2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인구 기준 지역별 증감율을 보면, 울산 어가인구는 2021년 1,326명으로 2017년 2,154명 대비 38.4%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산 33.9%, 제주 31.3%, 경북 30.9%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어가인구 현황을 보면, 30세 미만 어가인구는 2017년 1만 6,321명에서 2021년 9,492명으로 41.8%가 감소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 어가인구는 2017년 6만 160명에서 2021년 5만4,804명으로 8.9%가 감소해 연령대별 감소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어촌 빈집 방치로 이어지며, 어촌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기준 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빈집은 전국적으로 3만6,056동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어촌 빈집이 1만2,167동으로 전체 33.7%를 차지했고, 이어 전북 7,903동(21.9%), 경북 6,758동(18.7%), 경남 3,394동(9.4%)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어촌지역의 경제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촌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인구 감소·빈집 증가·경제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촌과 어가인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가속화되고 있는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어항의 시설 개선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수산공익직불제의 현실 반영, 어촌 빈집정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촌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어업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촌소멸 위기 대응 원년인 지금 이 시기에 어촌소멸을 경고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어촌소멸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의료원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 남원의료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9일 의료원을 방문해 현장 행정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의료원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경영 현신방안 등과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로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가결

전주시의회 이남숙 · 김학송 · 채영병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이남숙 의원

김학송 의원

채영병 의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새로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에 절수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고충을 듣고,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당 중기 특별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28일 임명됐다.

이번 임명은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특위위원장 개편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2021, 2022년) 선정되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초선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으며, 향후 중소기업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지역 공무원 노조 "실질임금삭감 규탄"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도내 노조대표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9일 전주시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대정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위한 대장정 전국릴레이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나인권 도의원, 오늘 의료기관 화재예방 기준 강화 촉구 예정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화재 예방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는데,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 대상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30일 전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도교육청 제2회 추경심사 마무리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 4조9214억 중 2건 52억5900만원 삭감 내부유보금 반영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교육청 결산 심사와 2022년 교육청 제2회 추경 심사가 52.6억원 삭감안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28일 2021 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과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2~28일까지 5차에 걸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4조9,214억원 중 2건, △52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결산 주요 심사 의견으로는, 전라북도의 채무액이 지난해 말 6,665억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로 공채발행에 따른 수입은 지역개발기금(지난해 말 조성액 5,830억원)에 적립돼 도내 각 지역의 개발사업에 쓰이지만 발행액과 이자는 전라북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되므로,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경제 위기 속 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전북도 채무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 일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15건(전북도7, 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추경 편성액 중 86%인 7,3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추경편성 목적 및 시기 등을 감안하고 일부 기금을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고, △학교교육과 유치원 태블릿PC지원(4억원)은 성능이 빠르게 변화되는 제품 특성상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장기 구동이 가능한 제품 주문을,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지원(2억7,000만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지역교육지원청의 농어촌교육활성화 사업(8개지역 6억8,500만원)과 관련해서는 인구소멸 대응으로 지자체와 협력사업 발굴 확대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했다.

삭감 사업으로는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조성(70개교, 105억원) 사업은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추진 가능한 학교에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것과 친환경 자재 사용을 주문하며 50% 삭감(△52억원)했고, △순창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900만원)은 급식차량 주차공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해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제도개선과 방향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으며, 새로운 교육감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반영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교육 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정읍시의회, 올 제2회 추경안 1조1944억 확정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9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이복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복지택시에 타 시도 마을버스의 장점을 도입를 건의했고, 황혜숙 의원은 정읍 특산품 응동 지황 재배 특화사업 육성을 제안했다. 이어, 고성환 의원은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상길 의원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2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가결했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1,943억9,300만6,000원으로 확정하고 폐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도, 옥정호 녹조발생 대응 총력… T/F팀 구성

임실 옥정호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도 차원의 대응팀이 구성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최근 옥정호 녹조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정읍시, 임실군과 함께 녹조대응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녹조대응 T/F팀은 지난 27일 1차 회의를 하고, 옥정호 녹조 발생 원인 및 조치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각 기관별 향후 추가 조치계획과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올해 강우량이 494.4mm(6.21~9.20) 예년 대비 64%로 인해 저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3.7% 낮은 상태에서 축적된 영양물질과 최근 이상기온으로 일사량이 증가 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F팀 1차 회의에서 옥정호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란에 필요한 선박 2대를 임실군에서 협조하기로 했고, 옥정호 상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해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녹조제거 장비를 확대 투입하고, 실시간 녹조 제거 공유 및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옥정호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10월 14일까지 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김경수 기자

순창군의회, 하반기 군정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채택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위원장 마화룡)를 위해 미래 순창 발효테마파크 시설물 등 관내 15개 사업장을 방문해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출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적성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중 문화뜨락센터의 기초골조공사를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사업과 건강장수 인큐베이팅 센터 시설물 건립 사업의 내부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고,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설사업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현재 일정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도에서 정한 기준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순창군의 주 재배 작물인 콩, 매실 등의 기타작물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순창=이양원기자